

종합·해설

5년만에 광주 찾은 박지원씨 인터뷰

“김홍업씨 유권자 심판에 맡겨야”

김대중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인 박지원씨는 지난 7일 김 전 대통령의 차남인 김홍업씨의 4·25 재보궐선거 출마와 관련 “민주당으로부터 합법적 공천을 받았고 새 지도부도 그것을 확인해줬기 때문에 많은 염려에 대해서는 고맙지만 유권자에게 심판을 맡기는 것도 법치국가에서 적당한 방법이다”고 말했다.

지난 2002년 이후 5년 만에 광주를 방문한 박 실장은 이날 오전 9시30분께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은 자리에서 광주일보 기자와 단독으로 만나 “많은 충고에 대해서는 본인이 잘 알고 있으며 이를 참작, 국민의 심판을 통해 좋은 결과가 있다면 지역과 국가 발전을 위해 기여할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서 합법적 공천 받아”

박 실장은 또 “김씨는 김대중이란 정치인, 대통령의 아들로서 많은 고난의 길을 걸어왔으며 두 번이나 파혼을 당했고 현 부인과의 어렵게 결혼한 사실을 국민은 잘 알고 있다”며 “지난번 불미한 사건(김씨가 2002년 이권청탁 사건으로 불명령을 선고받은 것)도 그것을 진술했던 사람이 양심선언권 편지로 사죄해 왔다. 거기에서 그 사건은 공갈·협박으로 조작 날조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실장은 8일 김씨의 출마 지역인 무안·신안과 목포 등을 방문, 지인들에게 김씨에 대한 지지를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대통령의 대북 역할론과 관련, 박 실장은 “김 전 대통령은 (남북관계가) 어려웠을 때 김정일 위원장의 초청과 노무현 대통령의 요청



김대중 전 대통령 비서실장인 박지원씨가 7일 오전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아 영령들에게 헌화·분향하고 있다.

/*위정직기자 jw@kwangju.co.kr

을 수락, 평양에 가서 했으나 지금은 연기된 상태며, 지금 당장은 갈 계획이 없으며 추진도 하지 않고 있다”면서 “김 전 대통령은 무엇보다 우선 남북정상회담이 이뤄져서 6자회담의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김 전 대통령께서는 북한 핵심일

후 노무현 대통령이 흔들릴 때도 세계·국내 언론과 강연을 통해 북미관계 개선만이 북한 핵개발을 확실하게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며 “김 전 대통령은 북한에 가더라도 특사가 아니라 전직 대통령으로서, 6·15 정상회담의 당사자로서 민족의 모든 문제와 민족의 장래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누고 싶어한다”고 강조했다.

박 실장은 범여권 통합 역할론에 대해 “저는 (사면으로) 발을 풀었지만 입은 묶였다. 정치 문제에 대해서는 얘기할 수 입장이 아니다”면서도 “김 전 대통령은 민족문제, 세계평화 그리고 코리아 브랜드 가치를 향상하는 것 등에는 기여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국내 정치 문제에 개입하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DJ, 전직 대통령 자격 박탈할 것”

박 실장은 하지만 “김 전 대통령은 다만 대선 정국에서 국민이 원하는 것이 양당제이고 그런 의미에서 통합을 말하는 것이며 또 지금까지 역대 선거가 부정적인 면이 많았는데 이런 정책대결로 국민에게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원론적 예기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실장은 이날 5·18 묘지를 방문, 방명록에 ‘5·18과 6·15! 민주주의와 평화통일입니다. 영령들이시여! 영원히 살아계십니다’라고 썼다. 박 실장은 이후 광주 중앙공원 내 학생독립운동 기념탑과 장상에 있는 박태원 전 전남지사의 묘소를 찾은 뒤 친지를 집에서 1박 한 뒤, 8일에는 목포 등을 방문한 뒤 상경했다.

/*박지정기자 jkpark@kwangju.co.kr

DJ “정부는 한미FTA에 올인해야”

신임 인사차 방문한 한 총리에 밝혀

한덕수 국무총리는 8일 오전 시내 동교동 자택으로 김대중 전 대통령을 예방, 신임 인사를 들었다.

김 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한미 FTA와 관련, “정부는 한미 FTA에 올인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군사안보 플러스 경제안보라는 큰 틀에서 홍보를 해라. 그리고 강대국 사이에서 살아남는 법이라는 큰 이슈를 가지고 대응해 달라”고 말했다고 총리실이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이에 대해 한 총리는 “정부는 지금까지는 한미 FTA를 경제적 관점에서 설명해왔는데 앞으로는 그런 틀에서 홍보노력을 보강하겠다”면서 “농업 부분에 대한 보완조치에 만전을 기하

면서 세계와 경쟁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농업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김 전 대통령은 “한 총리는 경제전문가인 만큼 경제이슈 특히 FTA를 거머쥐고 해달라”면서 “성공하는 농업, 이기는 농업을 해야 한다. 농촌에 가서 농민들과 무릎을 맞대고 농민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전 대통령은 특히 “머칠전에 전주에서 새만금특별법과 관련해 총리가 인사를 오면 이야기하겠다고 했다”면서 “이 법에 대해 총리가 관심을 가지고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고, 한 총리는 “잘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朴-李 선대본부장 누가 맡나

차, 안병훈·서정원씨 물망

李, 이재오 최고위원 거론

한나라당 유력 대선 주자인 박근혜 전 대표와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이달 말 예정인 선거대책본부 출범을 앞두고 ‘진용 갖추기’에 고심 중이다. 박 전 대표는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역할은 누가 맡나”고 고민하고 있다. 박 전 대표는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역할은 누가 맡나”고 고민하고 있다. 박 전 대표는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역할은 누가 맡나”고 고민하고 있다.

오 최고위원의 기용 여부를 놓고 갑론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지금까지의 역할과 위상론 놓고 보면 이 전 최고위원만한 적격자가 없지만 박 전 대표의 대선 주자로서 요구받고 있어 난감한 처지에 놓인 것. 이에 따라 대안으로 3선인 권철현, 이재창, 권오을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

박 전 대표 측에서는 선대본부장으로 캠프 좌장격인 안병훈 본부장이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합류를 결심한 것으로 알려진 서정원 전 대표가 강력한 경쟁자로 떠오르는 분위기다. 5선 의원으로 당 대표를 맡았던 화려한 정치경력과 함께 당 대표로서 대선 패배의 쓰라린 경험을 했다는 점이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민주당 ‘김홍업 살리기’ 총력

선거 지원단 구성 12일 당지도부 지원 유세

민주당이 김대중(DJ) 전 대통령 차남인 김홍업 전 아태재단 부이사장의 무안·신안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선을 위해 총력 지원전을 하고 있다.

민주당이 총력 지원을 나선 이유는 김씨의 출마를 놓고 현지에서 예상 외로 강한 반발기류가 형성되면서 최근 실시된 각종 여론조사에서 당선이 위협받는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5일 광주YMCA와 광주 직주 김정련 등 광주지역 29개 시민단체와 목포YMCA 등 전남지역 26개 시민단체가 김씨의 무안·신안 보선 출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식 표명하는 등

시민사회단체의 반발 기류도 부당하다.

우선 민주당은 대표경선 기간에 김홍업씨 전락공천 문제에 대해 유보적 인 입장을 취했던 박상천 대표가 지난 6일 자신이 주재한 첫 공직회의인 중앙위원회와 대표단회의에서 김씨에 대한 공천을 재확인함으로써 불안정한 요소를 없앴다. 민주당은 또 지난 6일 당직 인사 발표 직후 김정련 부대변인 등 중앙당 사무처 당직자들을 김홍업씨 선거캠프에 파견한 데 이어 오는 9일 대표단회의를 열어 부대표 중 한 명을 단장으로 하는 선거

지원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오는 12일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는 대로 박 대표 등 당 지도부가 선거지역을 방문해 지원 유세에 나서기로 했다.

김재두 부대변인은 “현재 여론조사에서 무소속 후보에게 다소 뒤지고 있지만 김홍업씨의 지지율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해당 지역의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이 55%에 달해 충분히 역전이 가능하다”며 “가장 전락공천을 재확인했고 민주당과 DJ의 자존심이 걸린 싸움이 된 만큼 총력전을 펴서 반드시 보선을 이길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정기자 jkpark@kwangju.co.kr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7일 무안·신안 국회의원 보궐선거 한나라당 후보인 강성민(오른쪽 끝) 목포과학대 초빙교수의 목포 선거사무실 개소식에 참석, 강 후보 및 신임 당원들과 함께 필승을 다짐하고 있다.

/*신안=조완남기자 wncho@kwangju.co.kr

“재보선 승리가 ‘삼합정치’ 출발”

한나라 대선주자·지도부 호남방문 지지 호소

무안·신안 국회의원 보궐선거 등 4·25 재·보선을 보며 앞두고 한나라당 대선주자와 지도부가 대거 호남 지원활동에 나서고 있다.

특히 대선주자들은 12일 대선을 앞두고 민심의 향배를 읽을 수 있는 이번 재·보선을 계기로 취약지역인 호남 지지도를 끌어올리기 위해 앞다퉀 지원 유세를 펼칠 예정이다.

우선 유력 대선주자인 박근혜 전 대표가 7일 같은 당 강성민 후보 선거 사무실 개소식에 참석해 지지 호소한 데 이어 14일에는 강재섭 대표, 16일에는 원희룡 의원, 18일에는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잇따라 무안·신안 지역을 찾아 지지 유세를 펼친다. 박 전 대표는 오는 19일경 또 한 차례 지역을 방문할 예정이다.

7일 목포 북항의 강 후보 선거사무실 개소식에 참석한 박근혜 전 대표는 “지역과 세대, 이념 화합을 이룬 ‘삼합

정치’의 물결이 도도하게 흐른다면 선진국을 건설할 수 있다”며 “4·25 재보선의 승리가 곧 화합을 위한 ‘삼합정치’의 출발”이라고 강조했다.

박 전 대표는 “지난 4·15 총선때 한나라당이 국민의 버림을 받게 된 데 이어 이번 재·보선으로 선거를 치렀던 2년 10개월을 회개할 기회가 새롭게 주어진다”며 “국민의 지지를 얻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면 많은 분들이 마음의 문을 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강 후보를 “이 나라의 역사와 정치사에 큰 획을 그을 수 있는 인

물”이라고 치켜세운 뒤 “한나라당이 호남의 대표 정당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역설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500여명의 당원과 지지자들이 참석해 상황을 이뤘으며 “잘 보이지 않는다”는 참석자들의 성화에 박 전 대표가 즉석에서 탁자 위에 올라가 연설을 해 눈길을 끌었다.

한편 한나라당 전남도당은 민주당 재선 기초의원인 신안군의회 황두남(비교·도초·혁신) 의원과 4대 신안군 의원을 지낸 고호걸 전 의원 등 2명의 전·현직 의원들이 공식 입당했다고 발표

했다. /*정후식기자 wh@kwangju.co.kr

/*신안=조완남기자 wncho@kwangju.co.kr

경락잔금대출 전문은행. 경락잔액의 100%까지, 간단한 심사 OK! 법조타운 1층(변원 일) ☎ 062)233-0117. 여수지점 ☎ 061)660-0114. 순천지점 ☎ 061)724-3399. 상업저축은행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

Table with columns: 사건번호, 물건번호, 소재지 및 면적,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비고. Includes details for various properties like 2006타경 42908, 45143, 32058, etc.

Table with columns: 물건번호, 소재지 및 면적,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비고. Includes details for properties like 2006타경 43918, 44409, 32058, etc.

●공판 부동산의 면적 표시는 실측치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매각조건 1. 불시매각 등 부동산거래를 중재하는 최고재판소인 대법원으로부터 불시매각처분을 받은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2. 매각대상: 2007. 4. 24. [화] 10:00... 3. 매각결정일자: 2007. 5. 1. [화] 16:00... 4. 매각장소: 광주지방법원 입찰장

2007. 4. 9. 광주지방법원 사법부좌관 이인철

광주지역의 다양한 서비스 광고: 광고접수안내, 파티외식산업, 칠순·팔순잔치, 출장뷔페 예약, CCTV, 화물자동차 전문매매, 적중은세상담.